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0년 11월 26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에너지환경표준과 김영표 과장, 명영찬 연구관(02-509-7271)	

빨래할 땐 3, 7!
세제사용지수 지켜 건강하고 스마트한 빨래를

- 기술표준원, 친환경·웰빙 빨래표준 발표
- 세제용 계량컵에 세제사용지수 3, 7 표시 의무화

빨래할 때 과연 세제를 얼마나 넣는 것이 적정량인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 소비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세탁량에 딱 맞는 적정 세제 사용량을 제시해주는 **빨래 표준**이 나왔기 때문이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26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제3회 그린화학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발맞춰 개발한 친환경·웰빙 빨래표준 "세제사용지수"를 발표했다.**

○ **세제사용지수는 1회 세탁량(kg)에 필요한 적정 세제 사용량(g 또는 ㎖)을 나타내는 표준지수로 숫자 3과 7로 표시**된다.

- 우리나라 4인 가족 기준 **1회 평균 세탁량이 약 7kg**인 경우 **세제사용지수는 7**이 되고, **적정 세제 사용량은 계량컵 1컵**이 된다.
- 또한 **1회 세탁량이 3kg**내외일 경우, **세제사용지수는 3**이 되고 **세제 계량컵에 표시된 눈금 3 만큼 세제를 사용**하면 된다.

※(붙임1)세제사용지수 안내표 및 그림 참고

○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국산브랜드 세제에는 **세제사용지수 3과 7이 표시된 계량컵이 동봉**되며, 세제 포장에는 세제사용지수에 대한 안내문이 계량컵 그림과 함께 표시된다.

- 이를 통해 현재까지 회사별로 각각 다르게 표시되었던 **권장 세제 사용량 및 계량컵의 눈금이 3과 7로 표준화**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KS M 2715 개정 : 세제사용지수 표시 의무화

○ 기술표준원은 세제 적정사용량 표준의 개발을 위해 FITI시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세탁기 및 세제 제조업체들과 학계 및 소비자단체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FITI시험연구원은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세제사용실태를 파악하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각 세제별 세척력, 세탁 후 세제 잔류량 등을 시험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세제사용지수를 3과 7로 결정하였다.

□ 기술표준원은 다수의 국내 소비자들이 **잘못된 지식에 의한 세제 오남용을 막고 건강하고 스마트한 빨래 습관을 기르도록** 세제사용지수에 대한 **소비자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다.

○ 대다수의 국내 소비자들이 **세제를 많이 사용해야 빨래가 깨끗하게 된다고 여기며 추가 헹굼을 여러 번 할수록 개운함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 **세탁세제의 과다사용**은 오히려 **세척력을 감소**시키고 세탁 후 옷에 남는 다량의 **세제찌꺼기는 민감한 피부에 트러블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물과 전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 일부 소비자들은 세제의 세척력에 영향을 미치는 계면활성제 성분이 세탁 후 의류 등에 잔류하면서 아토피를 유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고 있으나,

- 세제사용지수를 사용해 테스트한 결과 **추가 헹굼과 온수 사용 없이 세탁기의 표준 코스로만 세탁**을 해도 의류에 남는 **세제 잔류량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정도의 미미한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한 빨래습관은 세제 사용량 뿐 아니라 세탁기의 효율성에 대한 이해 또한 요구한다.

- **세탁기의 효율성**은 정해진 **세탁기 용량의 대부분을 채워 세탁할 때 극대화** 되는 것이 사실이나 일부 소비자들은 세탁기 용량의 50%~60%정도를 채워 세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잘 못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FITI시험연구원, 소비자 세탁습관 및 세제사용실태 조사결과 요약 (붙임2 참고)

□ 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명영찬 연구관은 “세제사용지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우리에게 **일곱 가지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 **“옷감 손상 최소화, 깨끗한 빨래, 세제찌꺼기 걱정 최소화, 물 절약, 전기 절약, 탄소발생량 감소, 이에 따라 커지는 만족감”**을 그 예로 들었다.

○ **세제사용지수를 통한 스마트한 빨래 방법**

- **세탁기의 용량을 대부분 채운다.**(물 높이 ‘고’ 수준)
- **세제사용지수를 지켜 세제를 넣고 온수사용과 추가 헹굼 없이 세탁한다.**

(붙임1)세제사용지수 안내표

적정 투입량을 알려주는 세제포장의 새로운 표시

세제사용지수는 1회 빨래 시 기준이 되는 세탁량(빨래량)에 따라 3, 7, 10, 14 등으로 구분되며 세제 구입 시 제공되는 계량컵에 눈금3과 7로 표시됨. 우리나라 4인 가족의 1회 평균 세탁량은 약 7kg 가량으로, 세제사용지수 7에 해당함.



■ 표준 사용량 표시 세제 투입 시 세탁량에 맞게 계량컵에 표시된 세제사용지수를 확인하세요.

세탁량에 따라	세제사용지수		물의 양 (L)	세제량 (g 또는 mL)
14 ~ kg	14	7 7	OO	OO
10 ~ kg	10	7 3	OO	OO
7 ~ kg	7	7	OO	OO
3 ~ kg	3	3	OO	OO

(붙임 2)

소비자 세탁습관 및 세탁세제 사용실태

– 조사결과 요약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의 50대 생활표준화 과제인 **"세제 적정량 사용을 위한 표준개발"**의 일환으로 FITI시험연구원이 조사전문기관(매크로게이트 코리아)에 의뢰해 전국의 15세 이상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세탁세제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가 세제권장사용량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세제 및 세탁기 관련 표시사항, 관련 규정 및 KS 표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홍보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인 세제사용 및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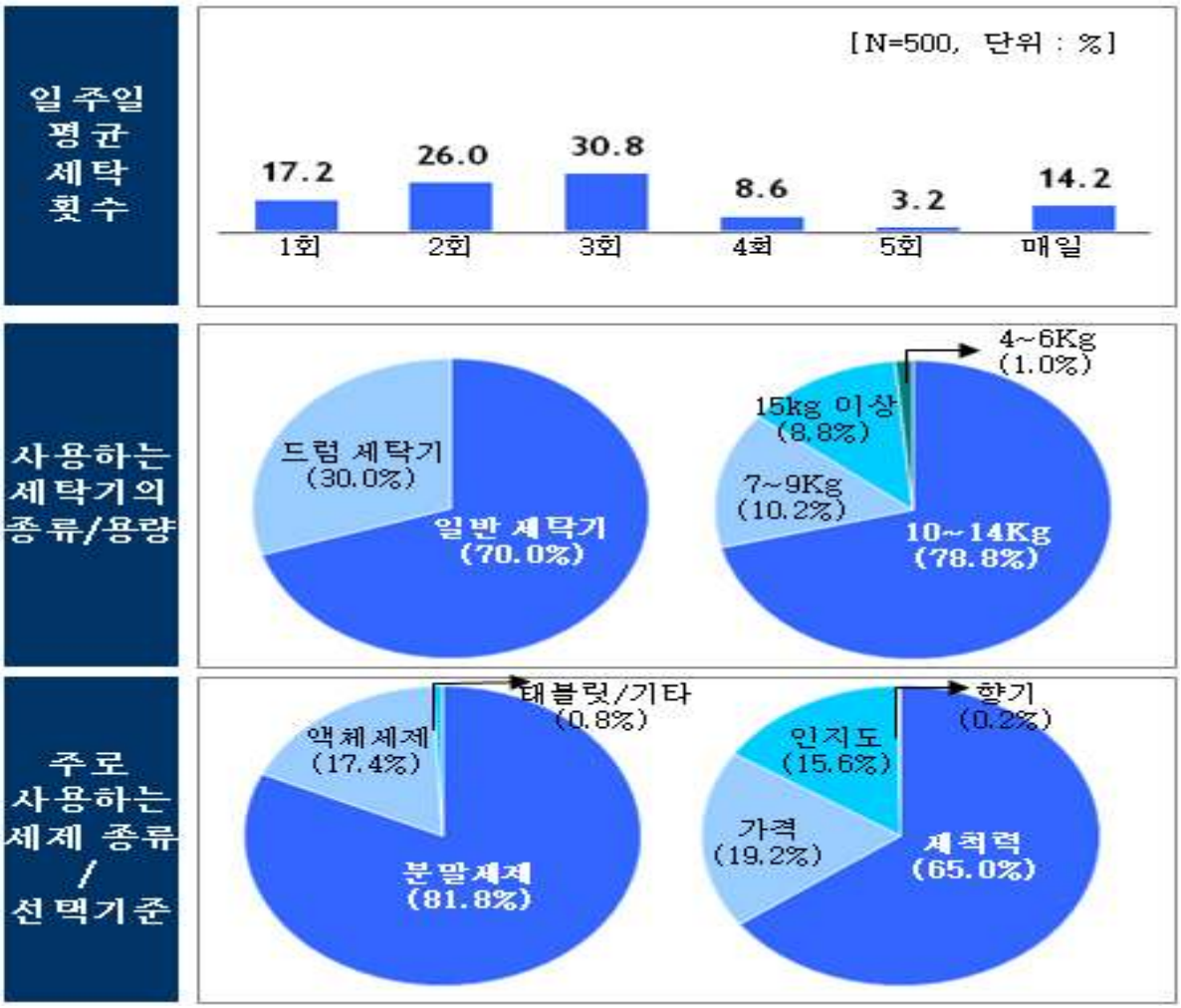
■ 일주일 3번 세탁, 10kg 이상 대용량 세탁기 선호

- 일주일 평균 세탁 횟수는 3회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2회 > 1회 > 매일의 순으로 세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사용하는 세탁기의 종류는 일반세탁기가 드럼세탁기에 비해 사용률이 매우 높으며, 10~14kg의 용량을 가장 높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비자들은 분말세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며, 세제 선택 시 세척력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척력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2%가 세제 종류를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 비슷하다(27.0%) > 세제량(14.4%) > 세탁 온도(11.8%) > 세탁기 종류(7.6%)의 순으로 나타남



■ 세제는 대부분 임의로 투입, 절반 이상이 추가헹굼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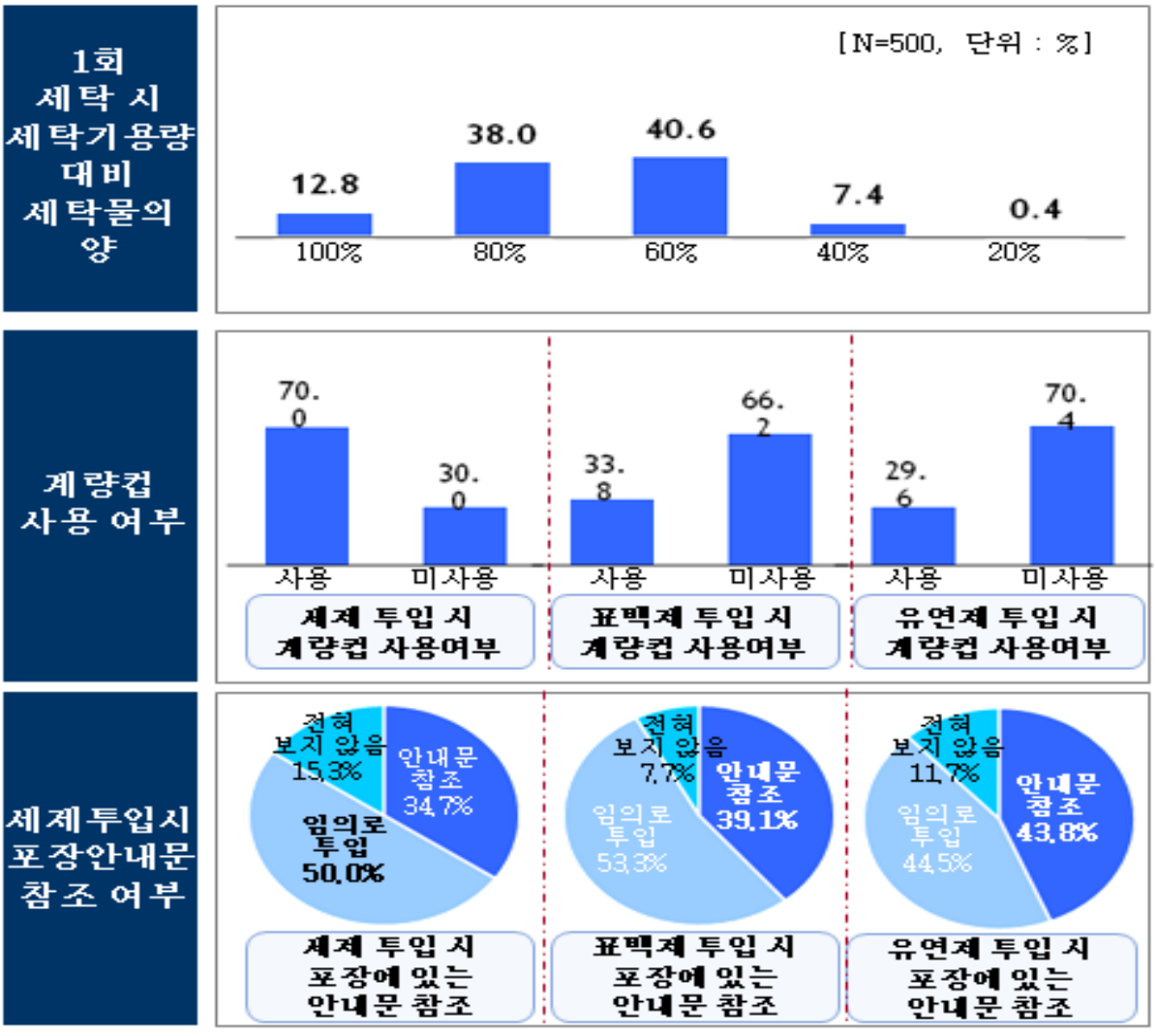
- 1회 세탁 시 세탁기 용량 대비 세탁물의 양은 60%가 40.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80%(38.0%) > 100%(12.8%)의 순으로 조사되어, 세탁물의 12.8% 만이 최대용량으로 세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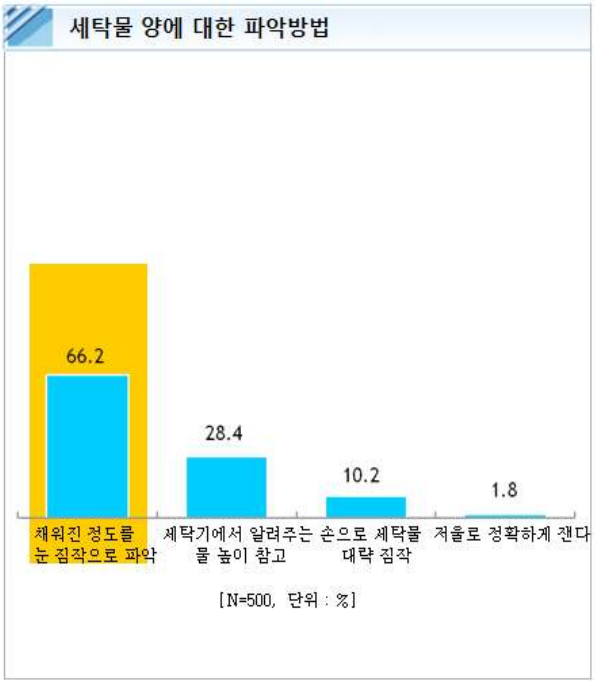
- 세제 투입 시 계량컵을 사용하는 응답자 비율은 70.0%이나 이들 중 안내문을 따르는 경우는 34.7%로 나타나, 세제사용 안내문에 따라 세제를 계량해서 투입하는 경우는 적은 것(25%)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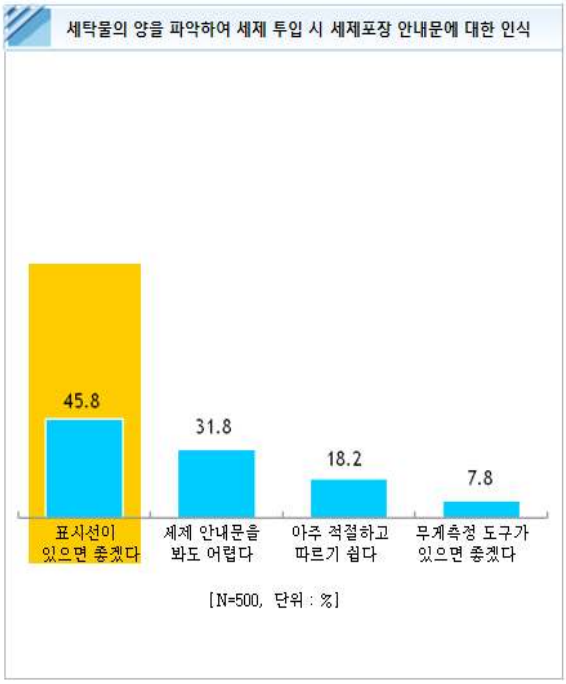
- 표백제, 유연제 투입시에는 계량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파악됨 (표백제 34%, 유연제 27%)

- 세탁물 양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2%가 “채워진 양을 눈짐작으로 파악한다”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세탁기에서 알려주는 물높이 참고 > 손으로 세탁물 대략 짐작 > 저울로 정확하게 측정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세탁물의 양을 파악하여 세제 투입 시 세제포장 안내문에 대해 “표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4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탁물의 양을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탁물 수위선 표시와 같은 보조계량 개념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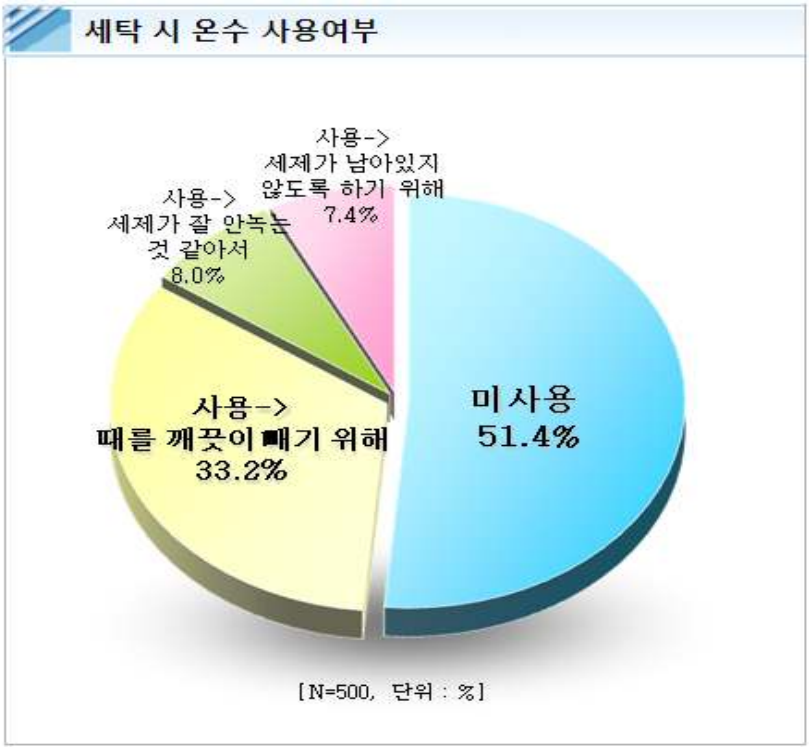


- 세탁시 온수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4%가 미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하는 경우 때를 더 깨끗이 빼기 위해 사용한다는 응답이 33.2%, 세제가 잘 안녹는 것 같아서가 8.0%,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가 7.4%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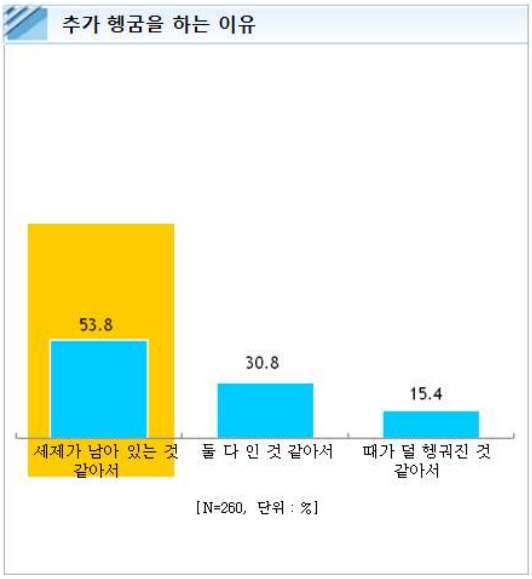
1.

- 세탁기 사용시 헹굼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추가헹굼을 사용하는 경우가 52.0%로 표준조건 그대로(48.0%)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 추가헹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3.8%가 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서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둘 다 인 것 같아서(30.8%) > 때가 덜 헹궈진 것 같아서(15.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높은 수의 응답자들(81.6%)이 세제 잔류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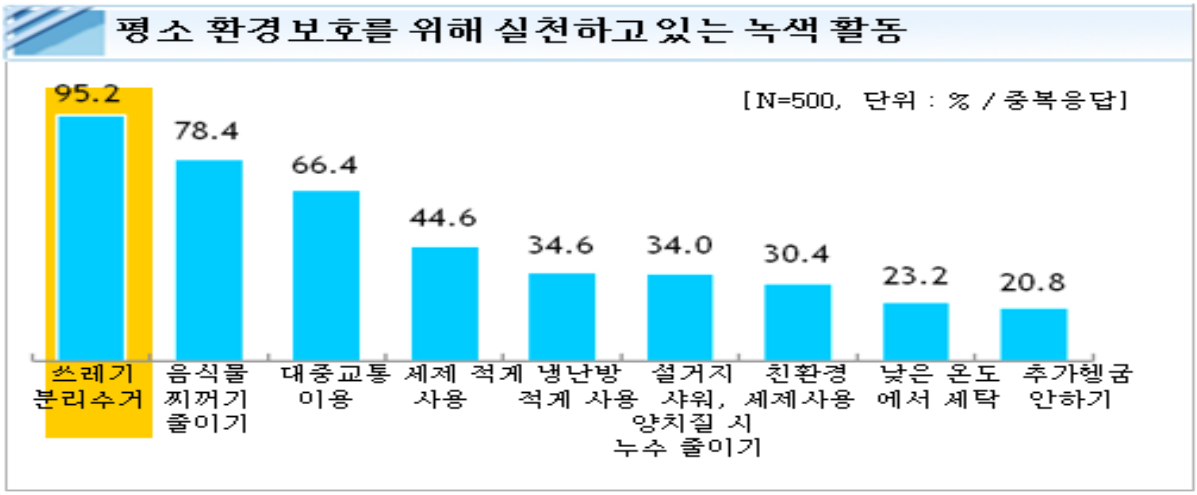




■ 세제 적정 사용량 잘 몰라 - 가이드 나오면 환영

- 평소 환경보호를 위해 실천하고 있는 녹색활동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78.4%) > 대중교통 이용(66.4%) > 세제 적게 사용(4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세제사용에 대한 환경의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세제 적정량 사용 가이드’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4.2%가 ‘꼭 필요하다’, 49.4%가 ‘조금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하였고, 이에 반해 ‘크게 도움 안된다’는 14.0%로 ‘필요 없다’는 11.8%로 조사되어, 가이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수가 높은 것(73.6%)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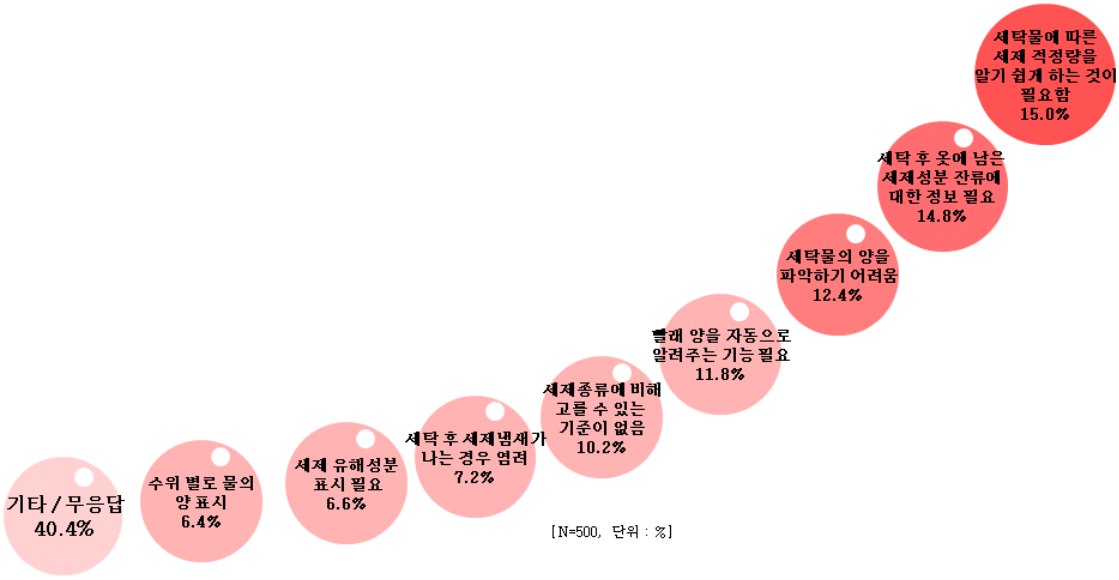




■ 세탁량에 맞는 세제사용량 필요, 세탁 후 남는 세제 잔류량도 궁금

- 평소 세탁시 불편했거나 필요한 개선점으로 ‘세탁물에 따른 세제 적정량을 알기 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언급하여, 세탁물의 양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세제 투입 안내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세탁 후 옷에 남은 세제성분 잔류에 대한 정보 필요(14.8%) > 세탁물의 양을 파악하기 어려움(12.4%) > 세탁물의 양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 필요(11.8%) > 세제종류에 비해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없음(10.2%) > 세탁 후 세제 냄새가 나는 경우 우려(7.2%) > 세제 유해성분 표시 필요(6.6%) 등의 순으로 지적함



합성세제는 뛰어난 세정력이나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거의 모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면서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세척성능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합성세제는 환경부담 문제를 통해 계속 개선되어 왔지만 수질오염, 각종 피부질환, 물낭비 동반 등 사회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제류 제품의 사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세제제품 선택과 적정량 사용이 어려워지므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제품정보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적정량의 세제 사용을 유도하고 세제류의 녹색제품화 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물낭비와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소비자가 세탁을 하면서 적정량의 세제를 사용하고도 세탁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전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46%p이다.